

진흥회 동정

한전 李宗勳 사장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전기공업진흥회는 1997. 10. 14(화) 07:30 무역센터 무역클럽 51층에서 한국전력공사 李宗勳 사장을 초청,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중전기기 업계, 단체장 및 통상산업부 韓永壽 생활공업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중전기기 업계를 위해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와 함께 중전기기 생산자와 대 수요처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전기기 업체는 최근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하락, 설비투자 부진등의 여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한전 의존도가 높은 중전기기 업계는 한전 발주 물량 감소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전에서는 중전기기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주물량 확대 및 구매, 검사제도 개선등 업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9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시행도 건의했다.

이에 한전 이종훈 사장은 국내 경기 하락에 따른 신규 수요 물량 감소 등으로 전기기자재의 구매량 감소가 불가피 했다고 전제하고, 전기요금 인상등 자금 수급이 원활해지면 구매 물량도 늘려 나갈 계획이며 특히 업계의 계획 생산을 통한 원가절감 도모를 위해 구매 물량을 연간 균등히 발주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 사업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검수시험 간소화 등 각종 구매·검사 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되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한전 이종훈 사장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기공을 계기로 향후 우리나라 중전기기 업계의 대북 진출이 기대되는 만큼 업계에서도 만반의 준비와 경쟁력 향상에 힘써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생산자와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여 친선을 도모하고 공존공영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中國, 重電機器 수출 촉진단 파견

韓國電機工業振興會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발전 및 송배전 설비를 확충하여 대규모 중전

기기 수요가 전망되는 중국에 민관합동의 수출 촉진단을 파견했다.

진홍희 李壽珍 상근부회장을 단장으로 LG산전(주), 효성중공업(주), 현대중공업(주), 보국전기공업(주) 등 주요 중전기기 업계 11개사와 통상산업부, 한국전기연구소 관계관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이번 수출 촉진단은 지난 11月 16일부터 11月 22日(7일간)까지 북경, 복건성 등 2개 도시를 방문, 수출 상담 및 시장조사 사업을 벌였다.

우리나라 중전기기 업계의 진출이 유망시 되는 지역을 선정, 수출시장 개척 활동을 벌인 이번 개

척단은 중국 電力工業部와 北京 電力集團公司 등을 방문하여 장기 전원개발계획 및 구매 계획등을 조사하고 현지 외국 진출업체의 생산설비 및 중국 중전기기 제조공장도 견학하였다.

한편, 진홍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내년 5月 19日부터 23日(5일간)까지 개최되는 「'98서울국제종합전기기전」의 홍보와 함께 중국 중전기기 관련업체의 참여 유도 및 바이어 유치 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ISO 9000 인증 추진 설명회 개최

최근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기업들이 ISO 9000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자원, 정보수집 능력 등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전기공업진홍희는 중소기업의 인증 획득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품질경영 컨설팅 전문기관인 한국품질경영컨설팅(K.Q.M.C) 및 한국생산성본부 품질인증원(KPC-QA)과 공동으로 ISO 9000 인증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

신광전공(주)등 20여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31일 진홍희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ISO 9000의 인증 필요성과 추진 배경, ISO 9000 인증 추진 방법, 중소기업의 인증 추진 사례, ISO 9000 인증 심사 개요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한국품질경영컨설팅에서는 중소기업형 컨설팅 모델을 구축해 놓고 중소기업이 희망할 경우 최단 기간내 최소 비용으로 경제적, 효율적 지도를 실시하고 앞으로 ISO 9000 인증 획득과 ISO 14000, 100PPM 환경영영시스

템을 연계한 현장 및 공정관리 개선 지도에도 역점을 두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기공업진홍희는 최근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가격경쟁 보다도 품질로의 승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업계의 품질경영 체계 조기 정착을 위해 ISO 9000 품질인증 획득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ISO 14000 계열규칙에 대한 인증 획득을 장려하고 업계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한국생산성본부 품질인증원과 품질시스템 인증업무와 관련한 약정을 금년초 체결한 바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진홍희가 추천한 회사가 생산성본부 품질인증원과 인증심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증비용중 본 심사비용의 10% 상당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인증에 관련된 기술지도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진홍희는 이번 ISO 인증 추진 설명회를 계기로 신개발 제품에 대한 단체규격 표준화 대상품목 조사등 중전기기 업계의 품질경영에 대한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